

기름값 논란 '사후정산제' 폐지... 가격 인하되나

주유소-정유사, 상생 협약... '유가 폭등에 위기 극복' 가격 반영 속도 개선·거래 투명성 강화 등에 기대감 ↑

광주·전남지역 유류가격이 8당 2000원을 돌파하면서 서민들의 한숨을 깊어지는 가운데 유가 상승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꼽히는 '사후정산제'가 폐지될 전망이다.

이로 인한 가격 반영 속도 개선과 거래 투명성 강화가 소비자 체감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대회의실에서 '중동전쟁발 유가 폭등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한 주유소-정유사 간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중동전쟁발 유가 급등 속에서 주유소 시장의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 가격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협약에서 주유소는 특정 정유사로부터 전량을 구매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해당 정유사 제품을 60% 이상 구매하는 혼합계약으로 전환하게 된다.

또 주유소와 정유사는 구매 비율을 이

로 공급가격과 공급물량, 거래조건을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기로 했다.

구매 비율은 60% 이상 범위에서 정유사와 주유소 간 개별 협의를 통해 정하도록 했다. 사후정산제도 폐지 수순에 들어간다.

주유소 사후정산제는 정유사와 주유소가 석유 제품을 거래할 때 물건을 받는 시점이 아닌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최종 가격을 확정해 정산하는 방식이다.

해당 제도는 가격 변동성이 극심한 에너지 시장에서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도입됐다.

일정 기간의 평균 가격을 산출해 적용하기에 급격한 가격 변화가 주유소 경영에

주는 충격을 완화하는 '완충 장치'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주유 업계는 해당 제도가 업계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기름값을 올리는 요인이라며 지속적으로 폐지를 주장해 왔다.

특히 정확한 공급가를 모른 채 기름을 받다보니 정산 가격이 공급가보다 높아질 수 있어 마진율을 높여 비싼 가격을 책정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사후정산제가 시장이 안정적일 경우에는 정유사와 주유소가 위험을 나누는 '상생 모델'일 수 있지만 최근과 같은 유가가 급등하는 시기에는 주유소의 불안 심리를 자극해 국내 기름값 인상을 양당기

는 '가폭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져 왔다.

기존 정유사가 우선 임시가격을 통보한 뒤 실제 공급가격과의 차액을 한 달 뒤, 많게는 두 달 뒤 정산하는 방식이라 주유소 업계는 최종 정산가를 알지 못한 채 소비자 판매가격을 정해야 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향후 정유사는 매일 일일판매기준가격을 사전에 확정해 공시해야 한다.

다만 주유소가 요청할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사후정산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주유소와 정유사 간 공정한 거래 관행 정착과 유가 안정을 위한 사회적 대화 이행을 지원하고 관련 제도 개선에 나

설 방침이다.

가격 확정이 빨라지고 주유소가 원가 불확실성을 크게 떠안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가격 인하 여지가 생겼다.

국제 유가 하락이 주유소 판매가에 더 빠르게 반영될 수 있고, 전속거래 원화로 주유소 간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8당 적은 금액이라도 차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논의를 통해 도출된 정유업계 거래 관행에 대한 개선사항을 '석유유통업종 표준거래계약서'에 반영해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롯데백화점 광주점, 할인행사 오늘부터 '패션 페어' 진행

롯데백화점 광주점이 파격적인 특가 상품과 함께 경품 이벤트, 10% 사은 혜택까지 증정하는 '롯데 패션 페어' 행사를 10일부터 12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각 상품군별로 엄선한 인기 아이템 특가 제안과 더불어 이벤트 참여 및 사은 혜택까지 더해 방문하는 고객으로 하여금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먼저 레저스포츠, 남성패션, 영패션, 키즈, 잡화 등 패션 상품군부터 식품, 리빙까지 100대 인기 아이템을 엄선해 최대 70%까지 할인한 특가 상품을 만나볼 수 있다.

레저 상품군의 나이키, 아디다스, 노스페이스, 밀레 등 인기 브랜드, 런닝화 등을 특가에 제안한다.

남성패션에서는 닥트 셔츠, 튜트 셔츠 등 인기 아이템을 최대 60%까지 할인한다.

영패션 브랜드의 르니엔맥코이, 씨씨콜렉트, 리스트, 올리브데올리브 등도 블라우스, 재킷 등 봄에 인기 좋은 다양한 아이템을 최대 70%까지 품목 할인한다.

식품매장의 베이커리 베이커리는 딸기파이(10일), 블루베리파이(11일), 마왕파이(12일)를 각 일자별로 선착순 100명에게 1+1으로 판매한다.

더불어 봄에 마시기 좋은 와인도 특가로 만나볼 수 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9일 민간 플랫폼 기업 2곳과 공동으로 '정부 지원사업 제3자 부당 개입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소진공, 정부 지원사업 '불법 브로커' 근절

공공기관-민간기업 부당개입 근절 공동 업무협약 체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정부 지원사업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손을 맞잡았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9일 오후 민간 플랫폼 기업 2곳과 공동으로 '정부 지원사업 제3자 부당 개입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정부 지원사업 현장에서 기업을 부리는 불법 브로커로 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방지하고, 과장광고 근절 및 지원사업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협약은 범정부 차원의 '제3자 부당 개입 문제해결 TF'에

참여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등 6개 공공기관과 전문매칭 서비스 플랫폼인 ㈜크몽, ㈜브레이브모바일(숨고) 등 민간 플랫폼 기업 2곳을 더해 총 8곳이 공동으로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공기관들은 불법 브로커의 최신 동향과 행동 패턴에 따른 주의 키워드 등 핵심 정보를 상호 공유하는 비상 소통 체계를 구축한다.

민간 플랫폼 기업들은 이를 바탕으로 플랫폼 내에서 이뤄지는 과장광고, 공공

기관 명칭 무단 사용 및 자격요건 관련 편법 행위 등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플랫폼 내에 '부당개입 주의 안내문'을 상시 노출해 이용자들의 주의를 환기하고, 플랫폼 이용자가 부당한 개입에 노출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보호 조치를 시행하는 한편, 참여 기관들과 공동으로 부당개입 근절 캠페인도 전개할 예정이다.

TF 관계자는 "민관이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정보와 역량을 결합해 부당개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정부 지원이 꼭 필요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 환경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광주상의, 근로자 복지 체감형 사업 확장 라벨리와 간식 공급 협약...제조현장 온열질환 예방 병행

광주지역 제조현장 근로자들의 휴식기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체감형 복지 지원이 본격화된다.

광주상공회의소는 9일 지역 빙과류 제조기업 ㈜라벨리와 간식(아이스크림) 공급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고용노동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자율계정)'을 기반으로 한 광주 지역주도형 일자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복지위크업 지원사업과 연계해 추진된다.

협약에 따라 ㈜라벨리는 참여기업에 아이스크림을 협약단가로 공급하고, 광주상의는 사업 운영을 통해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원한다. 참여기업은 간식 공급업체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라벨리 제품을

선택할 경우 협약단가 혜택이 적용된다.

이번 사업은 여름철(6~8월) 제조현장을 중심으로 정기적인 간식 제공과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을 병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폭염 환경에 노출된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로, 현장 체감도가 높은 복지 지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1954년 설립 이후 26개국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는 지역 기업 ㈜라벨리와 협업을 통해 눈길을 끈다. 단순 복지 지원을 넘어 지역 기업 제품 소비를 연계, 내수 활성화와 기업 성장 기반 확대까지 연결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정책적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광주상공회의소는 9일 지역 빙과류 제조기업 ㈜라벨리와 간식(아이스크림) 공급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광남일보 골목상권 활성화 연중캠페인

광주·전남의 골목경제가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골목경제는 지역공동체의 뿌리이자 상생경제입니다.

주민과 상인이 상생 협력으로 소비자에게는 할인혜택이 주어지고, 상인은 매출 증대 효과를 얻은 선순환 구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통시장 중심으로 사용처가 제한적이었던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골목형 상점가가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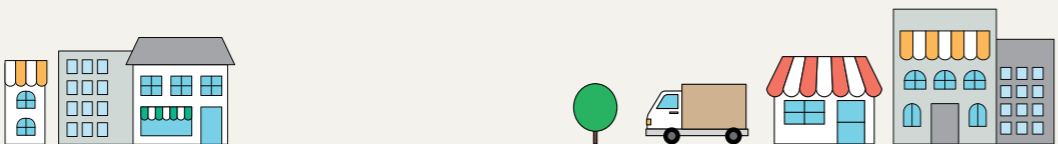
광남일보는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연중 캠페인을 통해 지역상권의 활력을 불어 넣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서구 동천동 상인회가 골목형상점가 지정 후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는 모습



서구 치평동 음식문화의 거리 골목형상점가 일원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소비촉진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모습



주최



후원



광주 서구 골목형상점가상인연합회